

점자로 말해요

온 세상이 반짝이는 12월,
남녀노소 모두가 설레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연인, 친구, 가족 등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음이 풍성해지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크리스마스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ㄱ, ㅋ, ㆁ, ㆁ] 다음에 약자 'ㅇ'이 올때는 'ㅇ'으로 바뀐다.



| 송암 박두성 선생의 묘소를 다녀와서

최장우(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청남도 지부장)

중도실명을 겪은 후, 시각장애 1급으로 살아온 지 15년이 지났다. 시각장애인의 내 삶은 180도 바뀌었고 그 중 가장 큰 변화를 말하자면 점자의 습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 점자는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이 반포한 ‘훈맹정음’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점자이다.

내가 점자를 배우게 된 동기는 충남지부장 선거에 입후보 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유권자가 점자는 아니냐고 물기에 점자가 무엇인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아니 시각장애인 대표자가 되겠다는 분이 점자도 모르느냐”라는 핀잔을 듣게 되었고 이것이 점자를 배우게 된 동기가 되었다.

중도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의 중요성을 깨닫고 송암 박두성 선생의 족적에 대해 궁금해 하던 차에 지난 2015년 5월 28일 전국 지부장단 간담회를 마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산동에 위치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묘소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송암 박두성 선생의 묘소에 가는 발걸음은 기대로 가득 찼으나, 묘소를 찾아가는 길은 우거진 잡초와 가파른 비탈길에다 불규칙한 계단이 발걸음을 무겁게 하였으며, 어렵게 도착하고 보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공동묘지와 같은 모습이었다.

시각장애인, 아니 온 국민의 존경심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송암 박두성 선생의 초라한 묘소를 보면서 이 시대의 한 시각장애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자문과 비애감 속에 그 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현 묘소가 시각장애인이 찾기도 어려운데다 제대로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고 오는 2026년은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인 점을 감안 송암 박두성 선생의 묘역을 이전·성역화 하는 것이 송암 박두성 선생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라 생각한다. 이 같은 묘역 성역화 사업을 위해서는 ‘훈맹정음 반포 백주년 기념사업회’ 등의 구성이 필요하다. 동 기념사업회에서는 묘역 성역화를 위한 입법 활동, 대정부 건의 활동 등이 필수적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송암 박두성 선생에 대해 존경심을 갖게 하는 일련의 계몽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점자를 유용하게 사용하면서도 점자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점자를 만드신 분에 대한 경외감의 부족이 송암 박두성 선생의 초라한 묘소로 드러난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시각장애인들의 언어이며 세상과 통하는 빛이 되어주는 점자를 창제하신 송암 박두성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보전하고 후세에 남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웹 및 모바일 접근성 개선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간단한 회원가입 조작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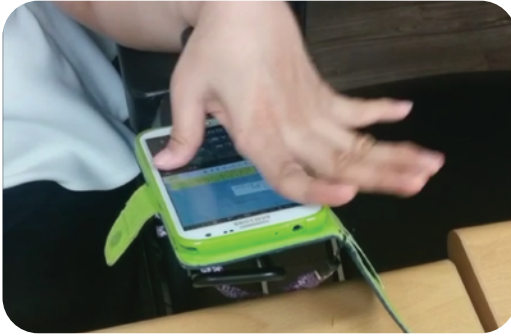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장애인의 웹 및 모바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 현재 존재하는 다수의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모바일 앱) 중 장애인의 접근성을 지키고 있는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은 드문 상황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웹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시각장애인이 웹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중증시각장애인(전맹)의 경우 화면을 통해 정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화면을 읽어주는 시각보조기기인 스크린리더기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스크린리더기는 텍스트 정보 등을 음성으로 읽어주며 html 소스 상 코딩된 순서대로 콘텐츠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스크린리더기를 사용할 경우 이미지를 대체할 수 있는 텍스트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파일명을 그대로 읽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정보를 인지할 수 없게 되며, 의미 있는 음성정보 없이 화면에 자막이나 영상만이 제공되어 있는 동영상 역시 대체 설명이 없다면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고대비모드, 돋보기, 화면확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나 웹 콘텐츠를 이용하게 되는데 배경과 글자의 충분한 명도 대비가 저시력 시각장애인들의 가독성을 높일 수 있으며 색상을 배제하더라도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되는데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음성, 자막 등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애플리케이션 내의 모든 객체에는 초점(focus)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초점은 장애인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위해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만약 애플리케이션 내에 터치 기반의 컨트롤 동작이 있을 경우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침은 두 손가락을 활용해야 하는 확대나 축소기법에도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면상의 모든 알림 정보를 한 가지 감각으로만 제공하지 않고 진동, 소리 등 다양한 방법

으로 제공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장애인도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쉽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할 것을 고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장애인의 웹 접근성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품질인증심사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른 인증마크를 발급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장애인의 웹 및 모바일 앱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합니다. 2016년에는 보다 많은 기업체와 개발자 등 관련 분야에서 장애인 사용자에 대한 관심으로 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을 향상하고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증 장애인 최초로 공공기관장 취임,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간다’는 미션으로

장애인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바로 한국장애인개발원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증 장애인 최초로 공공기관장이 되신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원장님께서서는 중증 장애인 최초로 공공기관장으로 취임이 되셨는데요. 이에 따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9월 1일자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제3대 원장으로 취임 했습니다. 취임 관련한 기사를 살펴보니, 중증시각장애인이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한 단면일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앞장서 왔던 그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원장님께서서는 20대 후반, 교통사고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되셨습니다. 당시 아이들을 가진 가장이셨는데, 사고 이후 어떤 삶의 변화가 찾아오셨나요?

1984년 1월,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고 정도가 심해 중증시각장애인 판정을 받았던 그 때가 스물여덟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결혼 후 아내와 아이들도 있었고, 한창 젊은 나이에 겪은 사고라 이십대 후반이었던 저는 감당하기 힘들었죠. 당시에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 받는 사람이라는 생각뿐이었고 실제로 삶을 포기하기 위한 몸부림도 쳐봤습니다. 하지만 삶을 계속 이어가느냐 포기하느냐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깨닫고 인천 해광학교에 입학해 해부학과 생리학, 의료임상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죠. 평범한 학생이 모범생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웃음). 교과서를 달달 외을 정도였으니까요. 지금도 의료임상학 교과서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의료임상학과 같은 과목은 안마와 침술을 위해 필수 교과목이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열심히 세상과 마주한 것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도 시각장애인이 되신 후, 재활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심리적인 부분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고를 겪었을 당시 결혼하여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우리 큰 아이가 4살이었고, 작은 아이가 막 태어난 때라 여기저기 살림 꾸리기가 더욱 바듯해진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가장인 저의 경제활동이 중단되어 버렸으니 무척 막막했죠. 당사자인 저 말고도 아내와 아이들, 어머니 가족 모두가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극복해나가야 할지 고민했던 시간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나니 오히려 삶에 대한 경이와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삶을 살아보자는 굳은 의지가 생겼지요.

원장님께서서는 **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시기 전, 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충청남도시각장애인연합회, 충청남도 의회 의원 등 장애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의 실무 경험을 갖고 계신데요. 그 때 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방향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장애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침술업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침술업을 하는데 법적 제약을 받는 줄은 몰랐습니다.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데 침술원 관리기관인 보건소의 단속 뿐 아니라, 시법기관은 침술업에 종사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단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의단체인 침사협회를 중심으로 침시술권보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보장운동을 하며 장애인의 열악한 영업환경, 근무환경을 접하게 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법과 제도의 개선이더군요. 안마사협회의 활동으로는 법과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느꼈고, 2003년도에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장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책적 접근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이때 국회의원, 지역 언론 등과 장애인 편의증진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 드러나니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세상을 바꾸는 일,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 사회를 변혁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일자리, 재할, 교육, 문화체육, 편의, 이동권 등 다양한 권리와 맞물려 있어 타 부처와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경험을 바탕으로, 현 장애인 지원 제도나 관련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장애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사자 중심의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견제해야 하며, 우리 사회 구조적 환경, 또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들이 수립되어지고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10년 전에 비해 현재는 더 발전했는데 장애인당사자가 체감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장애인인 KTX를 타려면 경사로를 열차에 부착하기 위해 역무원을 불러야 하고 하차하려면 미리 내릴 역에 전화를 해서 경사로를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스마트폰 사용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존재하고 흰지팡이를 짚고 독립보행을 할 때도 위험요소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법과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하는데 장애인당사자가 그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사자가 그 정책 중심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역할을 장애인단체도 함께해야 합니다. 장애인개발원도 지원하고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황화성 원장님만의 리더십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신뢰와 신의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신뢰와 신의는 제1의 리더십의 가치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소통을 통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원 가족들에게 늘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거리에서 만나는 직원들과도 종종 함께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또 개발원의 월례회의를 통해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9월 1일 취임하면서 우리 개발원 가족들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여러분들이 제안 할 것이 있다면 부담 없이 의견을 나누어 주길 바랍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누자는 것이죠. 요즘 부서별로 식사를 하며 소통으로 신뢰와 신의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화성 원장님께서서는 취임사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과 사회봉사활동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활발히 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1일 열렸던 취임간담회를 통해 장애인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룸센터 내에 있는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라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도 소통하기 위해서 단체들과의 만남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항상 정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현장의 목소리와 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각 단체 실무진들과도 의견을 나눌 것이며, 간부들과도 수시로 소통 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가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직원들에게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부분을 탈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우리 개발원의 조직은 현재 전략기획부, 경영지원부, 직업재활부, 편의증진부, 이룸센터관리부 등 7개의 부와 1실(정책연구실), 1센터(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책연구실 산하에만 정책개발연구부, 권익증진연구부 등 2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저는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연구실을 확대하고, 정책연구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장애인개발원을 정책연구 중심 기관으로 변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시각장애인을 대표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 되어서야 '보이는 것'을 여러 가지 다른 감각으로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그러했지만 장애인당사자 분들에게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삶을 더욱 따뜻하고 즐겁게 해주더군요.

장애인당사자로서 스스로 권리를 찾고 배움에 대한 열정과 자립에 대한 의지를 마음껏 펼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장애인개발원과 같은 좋은 이웃들과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 장애인에 대한 생각,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애정 어린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배리어프리 뮤지컬,
‘가족로망스’의 막이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주식회사 스튜디오 뮤지컬이 만나
마음 따뜻한 뮤지컬이 탄생했습니다.



익숙하고 편안함에 있고 있던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가족로망스’인데요. ‘가족로망스’는 시각장애인인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뮤지컬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족로망스’는 지난 11월 27일 대학로의 ‘지구인 씨어터’에서 관객에게 첫 선을 보였는데요. 신용우 성우의 현장해설과 배우 4인의 연기로 달아오른 공연 현장의 열기는 겨울의 추위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또 극 중간 중간에 삽입된 음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요의 가사를 각색한 곡들이 대부분으로 뮤지컬의 듣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가족로망스는 11월 27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부산(해운대), 창원, 경주, 목포에서도 공연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올 겨울, 배리어프리 뮤지컬 ‘가족로망스’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며 가족애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읽고

| 김은정(시각1급_광주광역시 남구)

'월든'은 숲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철저히 자유로운 삶을 산 소로우의 대표작이다. 자신이 직접 지은 작은 오두막에서 이년동안 기거하며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자아여행기라고 볼 수 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시민운동가와 문필가로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명성을 뒤로 하고 자발적 빈곤을 택해 홀로 월든 호수로 들어간 소로우의 이력자체만으로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개가 가웃해졌고, 월든 호수 숲속에서 그가 찾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그가 가진 것과 맞바꿀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의아했지만, 그런 질문을 묻는 것 자체가 내안에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자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안락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며 물질지상주의와 속도에 몰입해가는 현대인의 속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해 뜨끔해졌다.

삶의 골수까지 파고들어가 진리를 깨닫고자 애쓰는 소로우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소로우의 의연함은 관계 속에서 실패처럼 영긴 채 허덕이면서도 혼자 남겨지는 것이 겁나 관계 안으로 자신을 함몰시키고 있는 나에게는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다. 스스로를 상처 입히고 소진시켜가면서도 관계에 연연해 찢절매고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인지, 그렇게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자연을 자신의 안에 품고 한편으로 그 자신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그렇게 해서 참자신이 될 수 있었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그는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으며 자신만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인간이외의 것을 의인화하려는 인간중심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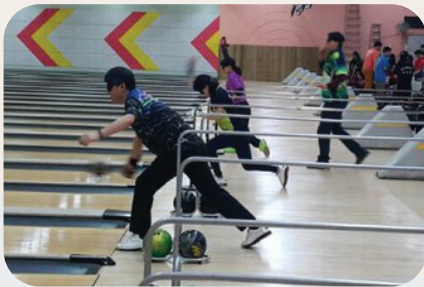
인간을 자연으로 치환해보는 관점과 맞닿아있었던 소로우는 자연이란 인간이 품을 수 없는 무한한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일찍이 알았던 것 같다. 나무들과 새들이 저 홀로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나름의 생장활동을 천연스럽게 진행하듯이 인간 또한 대자연의 넉넉함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검박한 삶을 풍요롭게 바꾸어가는 모습으로 확인시켜준다. 자연 속에서 우주와 신이 하나가 되어가며 많아지는 소로우의 영혼은 개인적인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한편 진리란 결코 먼 곳이 아닌 자신 안에 있는 것인지 모른다고 인생의 본질에 대해 역설해 주기도 한다.

삶과 죽음을 깊은 곳까지 천착해 들어가는 소로우의 진지한 철학이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과 얼마만큼 소통하고 있는지, 진정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추구해야할 가치는 무엇인지 등을 돌아보게 한다. 책을 덮으면서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긴장 속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달려온 나 자신을 새삼 돌아본다.

월든 호수는 지금도 그 넓이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살아있는 호수라는데, 나도 월든을 나의 가슴에 담아 마음의 넓이를 조금씩 넓혀나가야겠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지나친 탐욕으로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싶은 절박감이 들 때나 관계 속에서 나를 잃어간다는 단절감이 들 때, 눈부시게 발전해가는 현대 문명 속에서 도태되어가는 소외감이 들 때면 암담한 현실에 환한 빛을 밝혀주는 월든을 들추며 삶과 사람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야겠다. 아름다운 스승을 곁에 둘 수 있어 마음 든든하고 기쁘다.



연말을 맞아 각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 개최!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보성군 다향체육관에서 제10회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선수와 경기 임원진, 보호자 등을 포함한 약 7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는데요. 전문체육, 생활체육, 시범종목 등 경기는 모두 1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강진, 목포, 담양, 해남 등 13개 지회가 참가한 가운데 종합우승은 합산 점수 1900점으로 전라남도지부 목포시지회가 차지하였습니다.

12월 1일 대구의 현대볼링장에서는 대구광역시지부가 주최한 제10회 대구컵 전국시각장애인 볼링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볼링컵은 전국에서 68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B1 부문의 우승은 수원 김정한 선수(남), 서울의 양현경 선수(여)에게 돌아갔으며, B2와 B3의 우승은 부산의 이윤경 선수와 전주의 임선준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12월 11일 울산광역시지부는 지부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포항을 여행하는 참살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호미곶 온천과 국립등대박물관 등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꾸며졌는데요. 여행 참가자들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12월에는 12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의 시각장애인복지정책 세미나, 12월 18일 경기도지부의 후원·자원봉사자를 위한 감사의 밤 등의 지부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영화의 주인공, 모나리자

핀란드 출신의 프로그래머 마크 딜론이 3D 프린팅 기술로 모나리자를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딜론은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져보며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모나리자를 그대로 3D로 구현했는데요. 실제로 이 모나리자를 만져본 한 시각장애인 여성은 “말로만 듣고 상상하던 모나리자를 직접 경험했다”면서 “내 손으로 모나리자의 눈, 코, 입 모든 것을 느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딜론은 현재 모나리자를 시작으로 세계적인 예술 작품들을 3D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유명 크라우드 펀딩(후원, 기부,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 사이트를 통해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전세계의 수많은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는 딜론의 프로젝트를 응원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제12회 2015 정보접근성 동향 세미나 열려

11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제12회 2015 정보접근성 동향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전자신문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와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실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으며, 행사의 주관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에서 담당하였는데요.

발표자는 성균관대학교 이성일교수, 주식회사 모노디의 지훈 강사, 성신여자대학교 노석준 교수,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종민 선임연구원, 삼성 및 LG전자의 제품 관련 담당자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미나에는 약 90명 정도의 웹 접근성 관련 업체 및 담당자가 참석하였으며, 세미나 참가자들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보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개선방안 및 사례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정보접근성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시련, 점자음성표지판 표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11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점자음성표지판 표준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후원,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이하 한시련) 주최,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의 주관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시련의 강완식 정책실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되었는데요.

토론자는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호연 교수, 주식회사 보이스아이 박호성 이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김인순 부장, 한국복지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박봉철 교수의 총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약 50명의 관련자들이 참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의 이진원 팀장은 이와 같은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해 점자음성표지판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견을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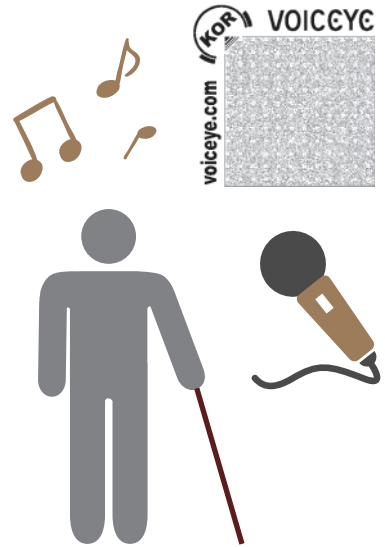


노래방을 갈 때

시각장애인들은 암기력이 대부분 좋은 편입니다. IQ가 유독 높다거나 비장애인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외워두는 생활이 습관화됐기 때문이겠지요. 노래방에서 노는 모습은 비장애인들이 어우러지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리세요.

단, 노래방 자막이 너무 작고, 곡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세요. 시각장애인이 선호하는 곡명을 찾아달라고 하는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사를 잘 모르는 노래라면 한 소절 앞부분 가사를 읽어주어 따라 부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함께 자리한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같이 편안한 사이에는 관계없지만, 직장처럼 상하가 있는 관계나 아직 덜 친한 사람들이 섞인 경우 적절히 노래순서를 안내하는 것도 배려라 하겠네요.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한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손으로보는세상 2015년 12월 185호

발행일 2015년 12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6925.1137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엔디 02.867.1921 캘리 모노D